

전주시, 화폐수급업무 재개 요청

도내 금융기관 원거리 수송때문에 경제적 비용증가·도난위험 등 이유들

전주시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전주시는 6월 1일자로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요청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한국은행 총재를 수신자로 한 이번 공문을 통해 6월부터 화폐수급업무가 재개된 인천본부와 강원본부와는 달리 전북본부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전북지역 금융기관 및 상공업체, 전주시민 및 전북도민의 허탈감을 전달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 이전 국내 3대 지방은행이자 서부권역 유일의 지방금융지주사인 JB금융지주가 소재한 도시로 화폐수급업무 재개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 자존심 회복과 지역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위해 힘써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중단 이후 전북지역 금융권과 경제계에 미친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지난달 27일 전북은행을 비롯한 전북지역 13개 금융기관 대표들과 긴급 조찬간담회를 갖고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중단에 따른 지역 금융기관의 애로사항들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도내 금융기관들은 그간 화폐수급 거래를 위해 매주 1~2회 왕복 약 160km~200km 정도 떨어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대전충남본부를 다녀야하는 번거로움, 원거리 화폐

수송에 따른 막대한 비용발생과 도난 사고 우려 등위험부담 등에 대한 불편과 불만을 쏟아냈다. 또, 화폐 매입과 신권서비스 제공, 화폐 적정 보유 등 도내 고객서비스 제공차원에서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를 시작으로 전북 경제계와 언론계 등에서 잇따라 전북지역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위한 성명서 발표와 재개 촉구를 주장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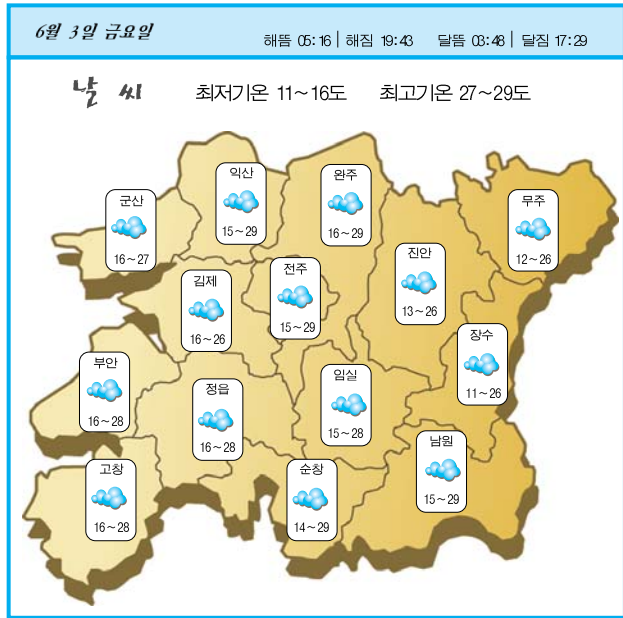
전주시의회(의장 박현규)도 지역민의 실추된 자존심 회복과 금융산업도시 완성을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복원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전북지역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위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여야 3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전북지역 화폐수급업무 재개 필요성 및 조속한 재개를 위한 정치권과의 공동대응을 요청한 상태로, 향후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가 결정될 때까지 전북도와 정치권, 경제계 등과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가 조속히 재개돼야 지역금융산업이 발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주시민 등 전북도민들의 삶어바린 자존감 또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폐수급업무는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전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환수하는 업무로, 지난 2012년 2월 한국은행의 조직 및 인력 개편으로 인해 전북본부 등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가 5대 광역본부로 통·폐합되며 전북지역은 광주전남본부로 이관됐다.



전주시, 서울시와 상생발전 공동워크숍 개최

우호교류 협약 실천 위해

전주시와 서울시가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한 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와 서울시는 2일부터 3일까지 사회적경제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1박 2일 일정의 공동워크숍을 전주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전주시와 서울시가 지난 3월 31일 체결한 '전주시·서울시 상생협력 우호교류 협약'의 실천방안으로 추진된다.

전주를 찾은 서울시 및 자치구 사회적경제분야 담당공무원과 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등 80여명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다.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양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토론, 한울생협과 남부시장 청년몰 등 전주시 사회적경제 우수지역 현장견학 등으로 순으로 진행된다.

워크숍 첫날, 참석자들은 이인우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장의 '사회적경제와 지역개발'을 주제로 한 특강에 이어 양 지자체간 민간교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 YOU답 콘서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2일 오후 전북 전주비전대학교에서 '제3차 청년YOU답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서는 양 도시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발표 및 질의 답변이 이뤄졌다.

또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공동관배장과 남부시장 청년몰 등 전주 사회적경제 현장을 견학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은 3일 서울시 및 자치구, 지원기관의 사업 발표 등 사업 공유의 시간과 한우마을 현장견학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서울시와 손을 맞잡고 사회적경제분야 활성화를 위한 교류활동을 적극 추진,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민간분야 교류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조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장은

은 "워크숍을 통해 전주시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분야 정책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남은 것들은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사회적경제 분야의 더욱 활발한 교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발달장애 청소년 작가 17인 초대전 '설렘' 개최

6일~9일 전북교육문화화관

국내 활동 중인 발달장애 청소년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진봉)은 발달장애 지재단(이사장 홍정길)과 공동으로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전북교육문화화관 제전시실에서 국내에서 활동 중인 발달장애 청소년 작가 17인 초대전 '설렘'을 개최한다. 이번 초대전은 장애인식 개선과 지역 사회 내 서번트 신드롬(Savant syndrome)을 지닌 장애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대전에 참여하는 17인의 청소년 작가들은 주로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자폐성 장애를 지닌 특수

교육대상학생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발달장애 지재단의 '별' 프로젝트를 통해 집중적인 미술교육을 받아 왔다.

올해에는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6회의 전시 일정이 기획돼 있으며 이번 전시회는 그들의 대표작을 비롯한 40여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주교육지원청 최진봉 교육장은 "이번 전시회가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것을 보여 줄 것이며, 도내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의 성장을 두려움 없이 기쁨과 희망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금지 당부

전북도교육청은 2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이 개정돼 음주운전 처리기준이 강화되면서 징계의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 음주운전은 훈정 1급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또 교통사고의 경우 벌금형, 도주, 무면허운전도 징계 의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중징계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범죄사건 처리기준도 강화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결정 통보를 받은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해선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 교통사고의 경우 벌금형, 도주, 무면허운전도 징계 의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 ✓ 전국유일 홍삼특구!
- ✓ 세계유일 홍삼명인!
-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 진안군수 품질인증!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 www.jinansam.com |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 063-433-8398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Quality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